

덤벙쟁이

서울 을지 초등학교

6학년 12반 김지후

맑은 공기는 덤벙쟁이예요.

그래서 늘 웃음꽃씨를 흘리고 다녀요.

맑은 공기가 훑-지나기면

산과 들도, 냇물도

꽃과 나무도, 우리도

웃음꽃 피어서

하하 호호

즐겁게 웃어요.